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제 14권 3호 (2013. 12) pp. 77~87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 14 Iss. 3 (December, 2013)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AIDS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최성숙*† ·이윤희**
*수성대학교 치위생과,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AID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Sung-Suk Choi*† ·Yun-Hui Le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useong College, Daegu Korea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gu health College, Daegu Korea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the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urriculum from the analysis of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AID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Data was collected from the students of two colleges majoring in dental hygiene in Daegu, using questionnaire. They were the students of total 390. The analysis was made using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se were conducted using SPSS 14.0 version.

Results: The horizontal and vertical transmission in percent correct knowledge of HIV infection, most of the questions asked of respondents knew the correct answer, AIDS attitudes in the community education hours to receive AIDS education is important then the response was highest at 88.2 percent. AIDS knowledge is based on clinical practice, and AIDS attitudes in accordance with the educational experience of the average difference between groups investigated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V knowledge and attitudes, no oil, depending on the educational experience of the average difference between groups investigated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The grade, the higher knowledge of HIV was found to be lower i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showed ($p<0.001$), clinical experience, the more experience, knowledge of HIV was higher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showed a relationship ($p<0.001$), a higher attitude about HIV AIDS knowledge was higher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p<0.001$).

접수일 : 2013년 11월 7일, 수정일 : 2013년 12월 20일, 채택일 : 2013년 12월 26일
교신저자 : 최성숙 (706-711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28길 15)
Tel: 053-749-7331, Fax: 053-749-7103, E-mail: chsukdent@sc.ac.kr

Conclusion: Dental hygiene to prevent infection associated with AIDS in the curriculum and hands-on curriculum to enhance patient care through the AIDS patients in clinical management after graduating as a dental hygienist at the ethical responsibility is considered to be very strong.

Key words : AIDS, Attitudes, Dental Hygiene Students, Knowledge

Ⅰ. 서론

20세기 페스트로 불리우며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AIDS는 1981년 공식적인 보고 이후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아시아의 감염인구가 아프리카의 감염인구 수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권관우 등, 2001). 2008년 세계 HIV감염인수는 총 3,340만 명으로 인류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2008년 한 해 동안 새로이 발견된 HIV감염인 수는 총 270만 명(240만명 ~ 300만명)으로 추정된다(UNAIDS, 2009).

에이즈는 인류에게 사회·경제 전반에 거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보건문제일 뿐만아니라 하나의 질병 차원을 넘어서 고아문제, 경제발전 저해, 빈곤, 사회 불평등, 차별 등과 관련된 것으로 전 세계적 수준의 재난으로 인류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손애리, 2007). AIDS는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감염으로 인한 인체의 면역체계 T세포를 파괴시켜 저항력을 잃고 기회감염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서인선과 안옥희, 1998). 에이즈 환자의 주요 감염성 질환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또는 원충들에 의해 생길 수 있다(정원균, 2002).

의료인이 HIV 감염에 노출되는 경로는 감염된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이나 칼 등의 날카로운 기구에 찔리는 경우와 의료인 자신의 점막이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감염된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는 경우이다(오종찬, 2002). 특히 치과진료의 특성상 시술과정이 혈액이나 타액에 대부분 노출되므로 잠재성 있는 감염성 체액의 노출로 부터 자신을 보호해야한다(정원균, 2002).

에이즈는 정신질환과 유사하게 낙인을 받는 대표적 질환 중의 하나로 부정적인 인식과 거부감이 큰 질병이다(김소영 등, 2008). Deacon와 Boulle(2007)는 “HIV감염인 이나 AIDS 환자와 가족은 다른 질병을 가진 사람들 보다 더욱 많은 차별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하였고, Campbell 등(1991)은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치료가 관건인 에이즈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치료진들조차도 부정적인 태도와 일상적인 접촉을 기피한다고 보고하였다.

대부분 에이즈 환자는 두경부의 증상을 가지며 구강의 임상적 소견으로 구강 칸디다증(Oral candidiasis), 구강 모발성 백반증(Oral hairy leukoplakia), 구강 카포시 육종(Oral kaposi′s sarcoma)의 증상을 발견할 수 있다. 숙련되고 관심 있는 치과의사의 경우 에이즈환자의 초기 발견자가 될 수 있다(Rangnathan과 Hemalatha, 2006). 그러나 많은 치과의료종사자들은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정확한 지식의 결여 및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이즈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윤형렬 등, 1990).

치과종사자 특히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그리고 미래의 치과계를 이끌어나갈 치의학과 학생들과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조사되었다. Erasmus 등(2005)은 치과대학생 및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이즈환자에 대한지식, 태도, 행동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 Mulligan 등(2006)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에이즈에 관한 지식, 태도, 행동에 대

한 교육 전후 효과를 조사하였다. 국내에서는 송근배 등(2000)이 개인치과의원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손해옥 등(2001)은 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송경희와 조명숙(2002), 김혜영과 박지혜(2010)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하지만, 에이즈 지식과 태도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보건교육과 임상실습을 경험한 치위생과 학생들과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분석하고 에이즈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치위생 분야에서는 좀 더 필요하다 사료되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래 치과전문가가 될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치과진료 시 감염공포나 심리적 갈등, 부정적 선입견을 없애고 환자와의 건설적인 상호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학교보건교육 및 임상교육을 강화 시켜 치과감염예방 사업에 참고가 될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학교보건교육 및 임상교육을 강화시켜 원활한 치과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차 감염 및 치과감염 예방법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에이즈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파악한다.
2) 일반적 특성에 대한 에이즈의 지식 및 태도를 파악한다.
3) 에이즈의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6월에 대구시 소재 2개 대학교 치위생과 1,2,3 학년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그 중 390명의 자료를 회수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연구도구 및 방법

에이즈의 지식과 태도에 대한 설문문항은 1986년에 Diclemente 등이 개발한 설문지를 참조하여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형시켰다. 에이즈의 지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에서는 원인 4문항(1,18-20), 심각성 6문항(2,6,10-11,22,24), 병의 전파 12문항(3-5,7-9,12-17), 예방 2문항(21,23) 총 24문항에 대하여 '예', '아니오'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중 1 ~ 11문항은 '예'가 정답이고, 12 ~ 24문항은 '아니오'가 정답이다.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전체 24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에이즈 지식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고 사용된 설문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61이었다.

에이즈의 태도 측정은 총 6문항으로 '예' 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전체 6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에이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측정 하였고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62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에이즈 태도 및 지식 점수는 기술통계 하였고, 일반적 특성 및 에이즈 지식도의 정답률 및 태도에 대한 정답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에이즈 지식 및 태도는 t-검정 및 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에이즈의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에이즈에 대한 태도 및 지식점수

대상자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점수는 총 24점 만점에 평균 18.20±3.08점 이었고, 에이즈에 대한 태도점수는 총 6점 만점에 평균 4.52±1.47점 이었다 <Table 1>.

<Table 1> Knowledge score and attitude about AIDS

Characteristics	M±SD	High score	Low score
Knowledge	18.20±3.08	24	6
Attitude	4.52±1.47	6	0

2. AIDS 지식에 대한 정답률

AIDS 지식에 대한 정답률에서 원인에 대해 묻는 4문항(1,18-20)중 72.6%의 응답자가 '에이즈는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반해 '에이즈는 성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한다.'는 사실이 틀리다가 정답이므로 틀리다는 사실을 59.5%가 알고 있었다.

AIDS 심각성에 대해 묻는 6문항(2,6,10- 11,22,24)중 '에이즈는 심각하며 감기를 앓는 것과 같지 않다'가 83.6%, '에이즈는 생명을 위협한다.'가 81.3%로 응답자의 80%이상이 인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그 질병으로 죽는다.'는 사실은 응답자의 40.3%만이 알고 있었다.

AIDS의 병의 전파 12문항(3-5, 7-9, 12-17)중 AIDS 고위험군 '동성연애자는 에이즈에 걸리기 쉽다'는 것은 비교적 높은 70.3%의 응답자가 알고 있었고, 모체로부터 수직감염의 가능성을 묻는 '임신한 여성이 에이즈에 걸리면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것은 84.9%의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었다. 수평감염의 가능성을 묻는 문항(7-9, 12-17)에서는 '성교 시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가 81.8%,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으면 에이즈에 감염 될 수 있다'가 90.0%,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사용한 주사바늘을 사용하면 에이즈에 걸린다'가 87.9%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에이즈는 모기와 같은 벌레에 물려 감염될 수도 없다' 라는 사실은 52.1%로만이 인지하고 있었다.

AIDS의 예방 2문항(21,23)중 '규칙적인 운동으로 에이즈를 예방 할 수 있다'가 81.5%, '새로운 백신이 에이즈 예방을 위해 개발되었다'는 것은 78.5%의 응답자들이 알고 있었다<Table 2>.

<Table 2> Correct answer ratio in knowledge of AIDS (n=390)

Number	Variables	Correct N(%)
1	AIDS is caused by a virus	283(72.6)
18	Stress causes AIDS	351(90.0)
19	AIDS is caused by the same virus the causes VD	232(59.5)

Number	Variables	Correct N(%)
20	The causes of AIDS is unknown	290(74.4)
	Cause	
2	AIDS is a medical condition in which your body cannot fight off disease	211(54.1)
6	Most people who get AIDS usually die from the disease	157(40.3)
10	AIDS is a life threatening disease	317(81.3)
11	People with AIDS usually have lots of other diseases as a result of AIDS	280(71.8)
22	AIDS can be cured if treated early	282(72.3)
24	AIDS is not at all serious, it is likely having a cold	326(83.6)
	Seriousness	
3	Homosexual people are apt to get AIDS	274(70.3)
4	Anybody can get AIDS	254(65.1)
5	If a pregnant woman has AIDS, there is a chance it may harm her unborn baby	331(84.9)
7	Using the condom during sex can lower the risk of getting AIDS	319(81.8)
8	Receiving a blood transfusion with infected blood can give a person AIDS	351(90.0)
9	You can get AIDS by sharing a needle with a drug user who has the disease	343(87.9)
12	People can be infected with AIDS through mosquito bites	203(52.1)
13	If you kiss someone with AIDS you will ger disease	327(83.8)
14	If you touch someone with AIDS you can get disease	345(88.5)
15	People can be infected with AIDS by suing the same things which AIDS infected person have used	331(84.9)
16	What you eat can give you AIDS?	326(83.6)
17	You can get AIDS by shaking hands with someone who has it	367(94.1)
	Spread- sickness	
21	I can avoid getting AIDS by exercising regularly	318(81.5)
23	A new vaccine has recently developed for the treatment of AIDS	306(78.5)
	Prevention	

1-11: Yes form-Corrent, 12-24: No from -Corrent

3. AIDS에 대한 태도

AIDS에 대한 태도에서는 '나는 에이즈에 걸릴까봐 두렵다.'에서는 '예' 60.0%, '아니오'가 40.0%로 '예'가 높게 나타났다. '나는 에이즈에 걸리기 쉬운 부류의 사람은 아니다.'에서 '예' 66.4%, '아니오' 33.6%로 '예'가 높았고, '나는 에이즈보다 다른 질병에 걸리는 편이 낫다.'에서 '예' 73.1%, '아니오' 26.9%로 '예'가 높았으며 '에이즈에 감염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혈액검사를 한다면 혈액검사를 받겠습니까?'에서 '예' 81.3%, '아니오' 18.7%로 '예'가 높았다. '학생들이 사회교육시간에 에이즈교육을 받는 것은 중요하다.'에서 '예' 88.2%, '아니오' 11.8%로 '예'가 높았으며 '내가 만약 에이즈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에서 '예' 83.1%, '아니오' 16.9%로 '예'가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Attitude about AIDS (n=390)

Number	Variables	YES N(%)	No N(%)
1	I am afraid of getting AIDS	234(60.0)	156(40.0)
2	I am not the kind of person who is likely to get AIDS	259(66.4)	131(33.6)
3	I'd rather get any other disease than AIDS	285(73.1)	105(26.9
4	If a free blood test was available to see if you have the AIDS virus, would you take it?	317(81.3)	73(18.7)
5	It is important that student learn about AIDS education in social education classes	344(88.2)	46(11.8)
6	If I great fear to eat the AIDS patient	324(83.1)	66(16.9)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AIDS 지식 및 태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AIDS 지식 및 태도에서 조사대상자는 치위생과 1,2,3학년 총 390명 으로 비슷한 분포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육경험에서 AIDS에 대한 교육을 경험한 학생이 73.1%, 교육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 26.9%로 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이 많았다. 임상실습 경험에서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64.6%로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이 35.4%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에이즈 지식에서는 학년간 평균은 2학년이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조사되었다($p<0.05$). 교육경험 유·무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지만($p=0.208$) 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이 교육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임상실습 유·무에서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p<0.01$).

에이즈 태도에서도 학년간 평균은 2학년이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조사되었다($p<0.05$). 교육경험 유·무에서는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조사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5$). 임상실습 유·무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p=0.063$)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Table 4>.

<Table 4> AIDS knowledge and attitude

Variables		n(%)	Knowledge M±SD	p	Attitude M±SD	p
Grade	1	138(35.4)	17.71±3.11	0.020*	4.33±1.60	0.033*
	2	131(33.6)	19.29±2.50		4.78±1.10	
	3	121(31.0)	17.78±3.34		4.44±1.63	
Education	Yes	285(73.1)	18.38±2.96	0.208	4.63±1.33	0.011*
	No	105(26.9)	17.94±3.37		4.20±1.76	
Clinical practice	Yes	252(64.6)	18.56±3.02	0.009**	4.62±1.39	0.063
	No	138(35.4)	17.71±3.11		4.33±1.60	

*p<0.05, **p<0.01, ***p<0.001
by the one-way ANOVA or independent t-test

5. AIDS의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AIDS의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AIDS에 대한 지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관계가 있었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AIDS에 대한 지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다(p<0.001). AIDS의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AIDS 지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다(p<0.001)<Table 5>.

<Table 5> Effect of variable about AIDS knowledge

Variables	B	β	F(t)	p
Grade	-1.260	-0.333	-3.481	0.001***
Education 1=Yes, 0=No	0.083	0.012	0.249	0.803
Clinical practice 1=Yes, 0=No	2.526	0.392	4.115	0.000***
Attitude	0.684	0.327	6.893	0.000***
R^2=0.162 Adjusted R^2=0.154				

*p<0.05, **p<0.01, ***p<0.001
by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Ⅳ. 고찰

현재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에이즈 예방백신의 개발과 HIV에 감염된 환자들의 발병 시기를 지연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완전한 치료방법이나 예방백신이 없는 상태이므로(한국에이즈 정보센타, 2005) 교육을 통한 에이즈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치과에서 환자를 돌보게 될 치위생과 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수혜 및 임상실습과의 연계성을 조사하여 학교보건교육 및 임상교육에 참고가 될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자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점수는 총 24점 만점에 18.2점으로 한영란과 이광옥(1998)의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HIV/AIDS에 대한 연구에서 20점 만점에 12점으로 나타난 결과 및 정희자(2005)의 혈액투석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4점 만점에 13.36점, 성미혜(2008)의 총 12점 만점에 6.71점 보다 다소 지식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아마도 에이즈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이즈에 대한 태도점수는 총 6점 만점에 4.5점으로 이러한 결과는 오종찬(2002)의 대구지역 임상병리사의 에이즈 관련 지식, 태도 및 행위에 관한 연구에서 75점 만점에 45.5점과 성미혜(2008)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총 25점 만점에 13.16점 보다 문항 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병리사 및 간호사들이 직, 간접적으로 에이즈환자나 HIV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집단임을 말한다.

에이즈 지식에 대한 정답률에서는 원인에 대해 묻는 '에이즈는 성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한다.'에 대한 정답률은 59.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손해옥 등(2001)의 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90.6%, 안현미 등(2008)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76.6%보다 낮은 수치였으나, 송근배(2000)의 대구광역시 치위생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2.1%, 송경희 와 조명숙(2002)의 보건계열 학생과 비보건 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보건계열 46.4%, 비보건 계열 37.1%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심각성에 대해서 '에이즈는 심각하지 않으며 감기를 앓는 것과 같다'가 83.6%, '에이즈는 생명을 위협한다.'가 81.3%로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나, 손해옥 등(2001)의 87.8%, 97.5%, 송근배 등(2000)의 99.5%, 89.7%로 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치과대학생들 과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치위생사들 보다 학업 중인 치위생과 학생들이 에이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결과라 생각된다. 병의 전파에 대해서 AIDS 고위험군 '동성연애자는 에이즈에 걸리기 쉽다'가 70.3%로 모체로부터 수직감염의 가능성을 묻는 '임신한 여성이 에이즈에 걸리면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84.9%로, 수평감염의 가능성을 묻는 '성교 시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가 81.8%,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으면 에이즈에 감염 될 수 있다'가 90.0%,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사용한 주사바늘을 사용하면 에이즈에 걸린다'가 87.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손해옥 등(2001)의 98.2%, 94.6%, 95.3%, 99.6% 4문항 모두 95%로 이상의 높은 점수 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치의학과 학생들 보다 치위생과 학생들이 치과감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에이즈 태도에서는 '학생들이 사회교육시간에 에이즈교육을 받는 것은 중요하다.'에서 '예' 88.2%를 보였다. 이는 안현미 등(2008)의 간호 대학생과 일반 대학생의 HIV/AIDS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 95.0%, 손해옥 등(2001)은 96%, 김혜영과 박지혜(2010)의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94.7%로 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에이즈 지식 및 태도 중 지식에서는 학년간 평균은 2학년이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조사되었다($p<0.05$). 교육경험($p=0.208$) 유·무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지만 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이 교육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영란과 이광옥(1998)의 간호과 학생들의 HIV/AIDS지식 및 태도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는 에이즈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의 지식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고, 안현미 등(2008)의 간호대학생과 일반 대학생의 HIV/AIDS 지식 및 태도에서 에이즈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대학 학생들이 AIDS지식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상반적 이었다. 이것은 아마도 조사대상자의 학년 및 연령과의 상관성에서 오는 차이라 할 수 있다. 임상실습 유·무에서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 보다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p<0.01$). 이러한 결과는 한영란과 이광옥(1998)의 임상경력이 없는 간호과 학생들이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결과와는 상반적이었다.

에이즈 태도에서도 학년간 평균은 2학년이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조사되었다($p<0.05$). 교육경험 유·무의 경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 보다 AIDS 태도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이러한 결과는 안현미 등(2008)의 간호 대학생과 일반 대학생의 HIV/AIDS지식 및 태도에서 간호대학생의 경우 HIV/AIDS에 대한 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이 AIDS 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서인선과 안옥희(1998)의 보건교육을 통한 일부여성의 AIDS에 대한 지식 및 태도의 변화에서는 교육전과 교육후의 태도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태도변화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해 볼 때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된다.

에이즈의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치위생과 교육과정 중 치과감염관리학이 1,2학년 때 개설되어 있어 3학년 때까지 연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는 학생들 보다 AIDS 지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다(($p<0.01$). AIDS 태도점수가 높을수록 지식도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다(($p<0.01$). 이러한 결과는 안현미 등(2008)의 간호 대학생과 일반 대학생 모두 HIV/AIDS지식 및 태도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식점수가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적 이었다. 성미혜(2008)의 연구에서도 간호사의 AIDS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을 경우 AIDS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오정아(1999)의 연구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에이즈에 대한 지식은 교육수혜 따라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태도에서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에이즈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았고,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에이즈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점수가 높았다. 또한, 에이즈의 태도가 높을수록 지식점수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려해 볼 때 치위생 교과과정 중 감염방지 및 전염성질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여 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또한, 임상실습 교육 강화를 통하여 전염성 질환 환자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재학 중 이러한 감염에 대한 교육 강화는 학교 졸업 후 치과임상에서 전염성 질환 특히 HIV/AIDS 환자 치료시 치과위생사로써의 윤리적인 책임감이 매우 강해 질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에이즈 지식 및 태도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였고, 설문지 항목 수 및 항목에 대한 이해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대구시 소개 2개 대학교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전체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표하는 표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몇 안 되는 연구 중 하나의 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유무, 임상실습과의 관련성을 평가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치위생과가 개설된 모든 대학의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따른 전염성 질환과 감염방지 및 개인방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2013년 6월에 대구시 소재 2개 대학교 치위생과 1,2,3 학년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그 중 390명의 자료를 회수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에이즈 지식정답률에서 수직감염과 수평감염을 묻는 문항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정답을 알고 있었고, 에이즈 태도에서는 '사회교육시간에 에이즈교육을 받는 것은 중요하다'가 88.2%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둘째, 에이즈 지식은 임상실습 유·무에 따라, 에이즈 태도는 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조사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학년이 높을수록 에이즈에 대한 지식에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였고($p<0.001$), 임상실습경험이 많을수록,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으며($p<0.001$), 에이즈에 대한 태도가 높을수록 에이즈 지식도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다($p<0.001$).

참고문헌

1. 권관우, 이경무, 이주열, 전미순. 에이즈의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건강증진학회지 2001;3(1):60-79.
2. 김소영, 이진석, 박수경, 김용익. 일반인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보건교육건강증 진확회지 2008;25(4):13-28.
3. 김혜영, 박지혜. 일개 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의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한국산학기술학회지 2010;11(5):1905-1911.
4. 서인선, 안옥희. 보건교육을 통한 일부여성의 AIDS에 대한 지식 및 태도의 변화. 한국 보건교육학회지 1998;15(2):95-104.
5. 성미혜. 간호사의 AIDS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예방적 행위. 한국산업간호학회지2008;17(1):14-22.
6. 손애리, 문정선, 박지은, 천성수, 고승덕. 서울시 중.고등학생의 에이즈 지식과 차별태도. 보건과사회과학 2007;21(6):25-49.
7. 손해옥, 이종영, 김혜영, 정성화, 송근배. 우리나라 치과대학생들의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1;25(3):287-298.
8. 송근배, 송경희, 이형숙. 대구광역시 개원가 치위생사들의 감염방지 실태 및 에이즈에 관 한 지식도 조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0;24(3):217-227.
9. 송경희, 조명숙. 일부 대학생들의 보건교육 수혜에 따른 B형 간염 및 AIDS에 관한 지식 도. 한국위생과학회지 2002;8(2):175-181.
10. 안현미, 유지수, 박창기, 김미옥.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HIV/AIDS 지식 및 태도.한국보건교육학회지 2008;22(1):108-120.
11. 오정아. 일부 중.고등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 및 태도. 한국보건교육학회지1999;13(1)63-76.
12. 오종찬. 대구지역 임상병리사의 AIDS관련 지식, 태도 및 행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대구: 영남대학교환경보건대학원, 2002.
13. 윤형렬, 홍대용, 이종영, 박성학, 이한우 외 2명. 일부 대학생에 있어서 후천성 면역 결 핍증에

관한 지식, 태도 및 관심도 조사 대한보건협회지 1990;16(2):31-37.
14. 정원균, 강은주, 윤미숙, 강현숙, 곽정숙 외 8명. 치과감염관리학, 서울: 대한나래출판사, 2002. p31-65.
15. 정희자.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AIDS에 대한 지식, 예방적행위 및 취약성 인지정도[석사학위논문]. 서울: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16. 한국에이즈 정보센타. 2008년 AIDS. 서울: 질병관리본부, 2005. http://www.aidsnfo.or.kr
17. 한영란, 이광옥. 간호과 학생의 HIV/AIDS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 보건교육학회지 1998;12(2):201-220.
18. Campbell S, Maki M, Willenbring K, Henry K. AIDS-related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among 629 registered nurses at a Minnesota hospital: A descriptive study. JANAC 1991;2(1):15-23.
19. Deacon H, Boulle A. Commentary: Factors affecting HIV/AIDS-related stigma and discrimination by medical professionals.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2007;36(1):185-186.
20. Dicliemente RJ Zorn J, Temoshok L. Adolescents and AIDS: a survey of knowledge, attitudes and beliefs about AIDS in San Francisco. Am J Public Health 1986;76(12);1443-1445.
21. Erasmus S, Luiters S, Brijlal P. Oral hygiene and dental student's knowledge,attitude and behavior in managing HIV/AIDS patients. Int J Dental Hygiene 2005;3(4):213-217.
22. Mulligan R, Seirawan H, Galligan J, Lemme S. The effect of an HIV/AIDSeducational program on the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s of dental professionals. J Dent Dduc 2006;70(8):857-868.
23. Ranganathan K, Hemalatha R. Oral lessions in HIV inf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n overview Adv Dent Res 2006;19(1):63-68.
24. UNAIDS. 2009. AIDS epidemic update. 3-6.